



GE 라이팅, 카페 전용 친환경 LED 조명 출시

- 할로겐 램프의 고품격 분위기는 그대로, 전기세는 1/10 절감
- 조명 전문가 대상 신제품 출시회 및 세미나 개최
- GE 글로벌 친환경 프로젝트 일환, 선정 카페 LED 조명 무상교체

(2013년 8월 12일, 서울) GE 라이팅 코리아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카페의 고품격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카페전용 LED 조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제품은 GE Energy Smart LED 조명 시리즈인 GE PAR30 13W 과 MR16 Kimming 7W/9W 로, GE 라이팅은 이번 출시를 통해 LED 조명 제품 라인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카페의 아늑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 특화된 조명으로, 기존 LED 조명보다 우수한 연색성을 특징으로 한다. 연색성이란 자연광에서 보는 사물의 색과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빛의 특징으로, GE Energy Smart LED 제품은 80ra 이상의 탁월한 연색성을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LED 램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면 낮은 연색성이 지적되어 온 것을 고려할 때, GE의 신제품은 LED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GE Energy Smart LED 제품은 할로겐 램프의 우수한 연색성 및 빛의 질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할로겐 램프 대비 에너지 사용을 90% 절감한다. 램프 자체 발열량도 할로겐 램프 대비 70%이상 낮아 빛의 열로 인한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해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할로겐 100W 조명을 GE PAR30 13W으로 변경할 경우(조명 50개,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 기준) 4개월 만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90만원 이상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GE 라이팅 코리아는 카페 전용 LED 출시를 기념해 국내 카페 조명 구매자 및 설계 담당자들을 초청해 출시회 및 세미나를 연다. 이 행사에서 참가한 업체 중 신청 업체를 우선 선정해 기존 조명을 GE LED Smart LED로 무상 교체해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는 GE의 글로벌 친환경 성장 전략인 에코메지네이션(Eomagianation) 전략의 일환으로, GE 라이팅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행사는 8월 27일 서울 THE 8(데이트)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이다.

###

GE라이팅은

GE라이팅은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GE의 모체이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램프를



발명한 이후 130년 동안 다양한 조명제품 개발을 선도해왔다. GE라이팅은 백열램프,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고압 방전램프, LED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조명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종합 조명 기업이다.

GE라이팅은 크게 LED부문, 조명 부문, 조명기구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뉜다. LED 부문은 건축조명, 산업조명, 디스플레이 조명, 일반조명을 포함하며, 조명 부문은 형광램프, 할로겐램프, 방전램프, 자동차용 램프, 특수 램프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램프류와 점등보조장치인 안정기를 다룬다. 조명기구 부문은 건축용, 산업용, 스포츠용, 도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GE라이팅의 모든 제품과 솔루션은 6시그마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 관리되고 있다.

본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하며, 2010년 기준 영업 매출은 약 45억 달러다. 전 세계 3개의 R&D 센터와 60개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CEO는 메리로즈 실베스타 (Maryrose Sylvester)이다.

GE라이팅코리아는

GE라이팅코리아는 1988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삼성과의 합작투자법인인 GE 삼성조명(주)을 거쳐 2008년 12월에 GE라이팅코리아로 자리매김하였다. GE라이팅코리아는 GE 라이팅의 60여 개의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2만여 종의 조명제품을 한국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조명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한국시장은 물론 G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문의

GE 코리아

권재은 과장 (T: 02-6201-4337 / HP: 010-7680-9300)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이수경 / 박도윤 / 조현지 (T: 02-6323-5053, 5074 / HP: 010-5289-7806, 010-3766-0452, 010-9032-8077)